

오직 구원의 은혜로!

[짧은 말씀 묵상집 (13)]

제임스 김 목사 나눔

"아골 골짜기"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비록 이 세상은

"아골 골짜기"(괴로움의 골짜기)(수 7:26)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시 23:4)라 할지라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아골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 주"시는 하나님(호 2:15)이시요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않고

항상 소망 중에 즐거워합니다(롬 12:12).

아낌없이 주시는 사랑

독자 이삭도 하나님에게 아끼지 않았던

아브라함을 생각할 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도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하나님 아버지가 생각납니다

(창 22:12; 롬 8:32).

아내

어진 여인(잠 12:4), 슬기로운 여인(19:14), "현숙한 여인"(31:10)을
아내로 얻은 자는 하나님께 은총(복)을 받은 자입니다(18:22).

그러나 "욕을 끼치는 여인"(12:4), 남편과 다투기를 잘 하는 여인(21:9, 19; 25:24)을
아내로 둔 남편은 ...

아내를 잘 모르는 남편?

남편 엘가나,
그는 자기 아내 한나에게
"내가 그대에게 열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라고 말했지만
자기가 한나를 사랑하므로
또 다른 아내인 브닌나가
자식이 없는 한나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한 것을 전혀 몰랐던 것 같습니다.
그는 자기 아내가 왜 울며 왜 식사를 안 하며
왜 마음이 슬픈지 몰랐습니다
(삼상 1:2-8).

아름다운 옷과 정결한 관

주님께서 우리의 더러운 옷을 벗기시고 우리의 죄악을 제거하여 버리셨으니
이젠 우리에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시고 정결한 관을 우리에게 씌우실 것입니다(슥 3:4-5).

아무리 "마치 하나님의 말씀과도 같"은 "좋은 계략"이라 할지라도 ...

아무리 "마치 하나님의 말씀과도 같"은 "좋은 계략"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좋은 계략을 좌절시키기로 작정하셨다면 그 계략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삼하 16:23; 17:14, 현대인의 성경).

하나님께서서는 다윗의 기도인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15:31)를 들으시사
압살롬에게 재난을 당하게 하시려고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을 좌절시키셨습니다
(17:14, 현대인의 성경).

아무리 아름답다 또는 미남자라고 해도 ...

아무리 아름답다 또는 미남자라고 해도(삼하 14:25)
사람들의 마음을 훔쳐서 그들로 하여금 자기가 꾸민 모든 일을
알지 못하게 하고 그저 따라오게만 하는 "압살롬"과 같은 사람을
매우 경계해야 합니다(15:6, 11).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

어제 저녁에 성경 말씀을 읽다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아이 성을 다 그의 손에 넘겨주셨다고 말씀하신 후 “... 오직 거기서 탈취할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가지라”는 말씀에 은혜를 받았습니다(수 8:2). 그 은혜란 하나님의 마음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 주시기를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점은 왜 하나님께서는 아이 성에서 탈취한 물건과 가축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스스로 가지라”고 말씀하시면서

여리고 성을 함락한 후에는 “이 성과 그 가운데에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라고 명하신 것일까요?(6:17)

다시 말하면, 왜 하나님께서는 여리고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께 온전히 바치라고 말씀하시고 나서

아이 성에서 탈취할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가지라고 말씀하신 것일까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할 때에 마태복음 6 장 33 절 말씀도 생각났습니다:

“그러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뒤편에 두어야 한다는 교훈을 다시금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여리고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께 온전히 바치고 나서 그 다음 아이 성에서 탈취할 물건과 가축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가지길 원하셨던 것을 보면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더하시길 원하신다고 생각합니다.

그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면서 경험하길 기원합니다.

아시고 또한 알게 하셨습니다.

"주 여호와와는 주의 종을 아시"고, "주의 종에게 알게 하셨"습니다(삼하 7:20, 21).

아이 성 사람들이 잘못된 것 두 가지?

여호수아 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과 아이 성 사람들과의 전쟁에서

아이 성 사람들이 이스라엘 정예병의 유인 작전(수 8:6, 16)에 넘어가서 패한 것을 묵상하면서
생각하게 된 아이 성 사람들이 잘못된 점 두 가지:

첫 번째로 잘못된 점:

아이 성읍에 있는 "모든 백성"이(16 절) "거짓으로 패한 척하여 광야 길로 도망하"는(15 절)
이스라엘을 따라간 것(17 절).

아니 어떻게 모든 백성이 다 이스라엘을 따라갑니까?

성읍을 지킬 사람들을 남겨뒀어야 하지 않았나요?

두 번째로 잘못된 점:

"아이와 벳엘에 이스라엘을 따라가지 아니한 자가 하나도 없으며
성문을 열어 놓고 이스라엘을 추격"한 것(17 절).

아니 어떻게 성문을 열어 놓을 수가 있나요?

어느 군대가 성문을 열고 적군을 추격함에 있어서 성문을 열어 놓나요?

저는 이 두 가지 아이 성 사람들이 잘못된 것을 생각할 때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1. 우리는 우리의 적인 사탄의 유인 작전 또는 유인 미혹에 넘어가지 말아야 합니다.
2. 우리는 사탄과 이 죄악 된 세상과 죄와 나 자신(옛 사람)과의 영적 싸움에서 적을 물리치는 데에만 모든 초점을 맞추게 아니라 동시에 나 자신과 가정과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지키는데도 균형 있게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3. 우리는 사탄과 그의 세력과의 영적 전쟁에서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서 무방비 영적 상태에서 사탄의 공격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오히려 우리는 우리 주님께 우리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야 합니다.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는 ...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랑하는 예은이,
주님의 말씀도 아직 그녀에게 나타나지는 않은 것 같지만
주님께서 그녀를 부르실 때
예은이가 '주님, 말씀하옵소서.
주님의 종이 듣겠나이다'라고 말할 수 있길 기원합니다
(삼상 3:7-9).

아직도 내 뜻을 관철하려고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

하나님의 뜻은 이미 이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혹시 지금 나는 그 이루어진 하나님의 뜻에 매우 분노하여
아직도 내 뜻이 이뤄지길 기도하며, 기대하며, 기다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
(욘 3:10-4:5)

아직도 세상 사람들처럼 살고 있는 교인들 ...

아직도 세상 사람들처럼 살고 있는
교인들 가운데는 시기와 다름이 있습니다
(고전 3:3, 현대인의 성경).

아침하는 사탄

우리가 환난과 역경 중에 있을 때
사탄은 마치 개가 꼬리를 치듯이 우리로 하여금 죄와 타협하여
편한 길로 가도록 아침합니다(박윤선)(살전 3:3).

악인과 의인

악인의 수입은 오히려 그/녀에게 형벌이 됩니다(잠 10:16 하).

"여호와께서 의인의 영혼은 주리지 않게 하시나 악인의 소욕은 물리치시느니라"(10:3).

하나님께서서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의롭다 함을 얻은 우리 성도들을
결코 주리지 않게 하십니다. 그

것이 육적으로든 영적으로든 우리가 환난과 궁핍함 속에서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서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며

또한 우리의 믿음을 단련시키시사 정금같이 나오게 하실 것입니다.

악인을 칭찬하고 있다는 것은 ...

악인을 칭찬하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율법을 버렸다는 증거요,

악인을 대적하고 있다는 것은 그 율법을 지키고 있다는 증거입니다(잠 28:4).

악인의 죄

악인의 죄는

악을 거절하지 않는 것입니다(시 36:1, 4).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맙시다.

우리는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고

그 악인과 함께 있으려고 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히려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경외해야 합니다.

그리할 때 정녕히 우리의 장래가 있겠고

우리의 소망이 끊어지지 않을 것입니다(잠 23:17-18; 24:1).

악행으로 인한 궁핍함은 ...

악행으로 인한 궁핍함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부르짖게 하며,

부르짖으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그 말씀의 내용은 ...

1.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
2. 두려워하지 말라
3. 우리의 불순종 ... 입니다(삿 6:1-10).

알고 짓는 죄와 알고 행하는 순종

바벨론의 벨사살 왕,

그는 자기의 부친 느부갓네살 왕이 마음을 높이며 뜻이 강박하여 교만을 행하므로
하나님께서 그 왕위를 폐하시고 그 영광을 뺏으신 것(단 5:20)을 "알고도"(22 절)
"오히려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도리어 스스로 높여 하나님께 죄를 범했습니다(22-23 절).
그 결과 그는 함께 술을 마시던 일천 명이나 되는 귀인들 앞에서(1 절) 높임을 받았는지는
모르겠지만 결국에는 하나님께 죽임을 당합니다(30 절).

바벨론의 총리 다니엘,

그는 국사에 대하여 아무 틈, 아무 허물을 얻지 못한 다른 두 총리들과 방백들이(6:4)
하나님의 율법에 대하여 그 틈을 얻고자(5 절) 바벨론 왕 다리오로 하여금 한 율법을 세우게
만들되 30 일 동안 누구든지 왕 외에 어느 신에게나 사람에게나 무엇을 구하면
사자 굴에 던져 넣기로 한(7 절) 조서에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그 방의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열린 창에서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세 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감사하였습니다(10 절).
그 결과 그는 사자 굴에 던져 넣은바 되었지만(16 절)
그가 의뢰하는 하나님으로부터(23 절) 구원을 받습니다(27 절).
베사살은 알고도 스스로 높여 하나님께 죄를 범하여 죽임을 당했지만
다니엘은 죽임을 당할 것을 알고도 하나님께 기도하며 감사하므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알고 짓는 죄와 알고 행하는 순종에 대한 교훈을 받습니다.

알고도 단속하지 아니하면 ...

우리에게는 나쁜(죄악 된) 습관이 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우리를 경고하십니다(출 21:29).

우리는 그 경고를 받아 우리 자신은 단속해야 합니다.

알고도 단속하지 아니하면 ... (36 절)

악을 행한 다윗 왕과 아합 왕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 다윗 왕(삼하 11:27)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 "여인이 목욕을 하는"것을 보므로(2 절)],
그는 우리아를 죽이고 그의 아내인 밧세바를 빼앗아(12:4, 9-10)
자기 아내로 삼았습니다(11:27).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시사 다윗 왕을 책망하셨을 때
다윗은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고 자복하므로
죄 사함을 받아 죽지는 않게 되었지만 다윗이 낳은 아이는 죽었습니다(12:13-14, 18).
다윗 왕은 "나이가 많아 늙"어(왕상 1:1;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워 다윗 성에
장사"되었습니다(2:10).

자기 "자신을 팔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 아합 왕(왕상 21:20, 25)
["그를 그의 아내 이세벨이 총동하"였기에(25 절)],
그는 나봇을 죽이고 그의 포도원을 빼앗아(15, 19 절)
자기 것으로 삼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를 보내시사 아합 왕을 책망하셨을 때
아합은 "그의 옷을 찢고 굶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굶은 배에 누우며
또 풀이 죽어 다"녔습니다(27 절).
그는 하나님 앞에서 경비했습니다(29 절).
그래서 하나님께서 재앙을 아합의 시대에 내리지 아니하시고
"그 아들의 시대에야 그의 집에 재앙을 내리"셨습니다(29 절).
아합 왕은 길르앗 라못에서 전쟁 중에 죽임을 당한 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과 같이" "창기들이 목욕하는 곳"에서
그가 타고 있었던 병거를 "씻으매 개들이 그의 피를 핥았"습니다(22:29-38).

양심과 정의 길이 다를 때 ...?

양심에 찢림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에 이끌린다면...?

인간의 정을 이길 수 있는 강한 양심을 어떻게 키울 수 있을까...?

1. 성령의 검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음이 찢려야 한다(삼상 24:5; 엡 6:17).
2. 착한 양심/깨끗한 양심/선한 양심을 가진다(딤후 1:19; 3:9; 벰전 3:16).
3. 거짓이 없는 믿음을 가진다(딤후 1:5, 19).
4. 그리스도 안에서 진실을 말해야 한다(롬 9:1).
5. 선한 양심을 위해 기도하며 또한 기도부탁을 한다(히 13:18).

어느 때까지 나는 하나님을 믿지 않고 멸시할 것인가??

하나님께서 우리 삶 속에 행하신 많은 역사를 보고서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우리는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고,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민 14:11).

어떻게 도와 줄 줄을 알게 하소서.

주님,

제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곤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 줄 줄을 알게 하시고

새벽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 같이 알아듣게 하소서

(사 50:4).

어떻게 마음이 슬픈 여자가 ...?

어떻게 울며 먹지도 않았던 마음이 슬픈 여자 한나가

다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 빛이

없을 수 있었을까요?

(삼상 1:8, 15, 18)

혹시 하나님 앞에 자기의 심정을 통한 후

엘리 제사장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네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는

말을 듣고 은혜를 입었기 때문은 아닐까요?

(15, 17-18 절)

어떻게 설득할 수 있을까?

상대방을 설득함에 있어서 필요한 것은
오래 참음과 부드러운 혀입니다
(잠 25:15).

어떻게 스스로 복을 빌 수 있나요?

몸은 교회 안에 있지만 마음은 주님을 떠나
세상 사람들이 섬기는 재물을 사랑하면서도
어떻게 우리는 스스로 복을 빌어
우리에게는 평안이 있으리라 말할 수 있을까요?
(신 29:18-19)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있음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1. 우리가 거듭났으면 (중생했으면)(요일 4:7)
2.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11 절)
3.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15 절).

어떻게, 왜 하나님이 죽으셨을까요?

예수님은 태초부터 있는 영원한 생명이신(요일 1:1, 2)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요일 5:5) 하나님이신데(요 1:1, 10:30; 빌 2:6; 요일 5:10)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시사(요일 3:16)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빌 2:8).

어떻게 영원한 생명이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죽으실 수가 있으셨을까요?
왜 그리하신 것일까요?

어머니의 빼돌어진 자식 사랑?

어머니 리브가의 자식 사랑은 빼돌어졌다고 생각합니다.

리브가는 말아들 에서 보다 둘째 아들 야곱을 더 사랑하여(favoritism)(창 25:28) 남편 이삭이 죽기 전에 에서에게 마음껏 축복하려던 것을 야곱으로 하여금 가로채도록 배우조정(manipulation)을 했습니다.

그녀는 이삭이 에서에게 말하는 것을 듣고(27:6)

야곱에게 명하여 좋은 염소 새끼 2 마리를 자기에게 가져오면 자기가 그것으로 이삭이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야곱으로 하여금 이삭에게 가져다 드리게 하여 식사 후 야곱으로 하여금 이삭에게 축복을 받게 했습니다(8-10 절). 결국 어머니 리브가는 아들 야곱으로 하여금 이삭의 눈에 "속이는 자"가 되게 했습니다(12 절).

물론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리브가의 빼돌어진 자식 사랑도 사용하셔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을 야곱을 통해 이루셨지만 저는 왜 어머니 리브가가 에서 말고 야곱을 그리도 빼돌어진 사랑으로 사랑을 했을까 생각해 볼 때 그 이유는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고(25:27) 또한 에서가 이방인 아내로 맞아하므로 그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고(26:35) 그 며느리들로 말미암아 라브가는 자기의 삶이 싫어졌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27:46).

어쩌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실지도 ...?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목사님들에게
'너를 따르는 교인이 너무 많다',
'교인이 아직도 많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지도 ...
(삿 6:2, 4)

엿매이고 싶지 않습니다.

유익한 것이 아닌 것에
엿매이고 싶지 않습니다
(고전 6:12).

에워싸려고 합니다.

우리의 원수 마귀는
마치 사울 왕이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에워싸려고 한 것처럼(삼상 23:8, 26)
우리를 에워싸되 두려움과 불신으로 에워싸려고
부단히 노력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그러나 "같은"!

여러 가지 은사,
여러 가지 직분,
여러 가지 사역,
그러나
같은 성령님,
같은 주님,
같은 하나님!
(고전 12:4-7)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할 때에 ...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으로 참고 견디어 내면서
그 시험들을 믿음의 시련으로 받아들여
인내를 온전히 이루어 나아가고
부족한 지혜도 하나님께 믿음으로 구하므로 받던지

아니면
사탄의 속임수에 넘어가
지금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고 생각하면서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되어 죄를 범하든지
둘 중에 하나라 생각합니다(약 1:2-8; 12-16).

"여러 가지" "재주"와 "기술"로 ...

주님의 몸 된 교회에는

"여러 가지" "은사"와 "직분"과 "사역"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님과 주님과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고전 12:4-6).

주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지명하여 부르"셨습니다(출 31:2).

그리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을 충만하게 하시고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와 "기술"로

주님의 몸 된 교회를 섬기게 하시므로(3, 5 절)

주님의 교회를 세우고 계십니다(마 16:18).

여자를 모르는 남자들?

남편 엘가나는 자기 아내 한나가 왜 울며 왜 먹지 않으며

왜 그녀의 마음이 슬픈지 몰랐는데(삼상 1:8),

남자 엘리 제사장은 더 나아가서 마음이 괴로워서 하나님께 오래 기도하며 통곡하는

여성도 한나가 포도주에 취한 줄로 오해를 했습니다(10-14 절).

"여호와 샬롬"

안심할 수 없는 이 상황, 충분히 두려워할 수 있는 이 상황,

심지어 사랑하는 사람이 죽을 수도 있는 이 위기의 상황에서도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여호와 샬롬"을 누리야 합니다

(삿 6:23-24).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삼상 2:10)
(한나의 기도 중에서 ...)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모세는 보행자 60 만 명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1 달 동안 고기를 먹으려면
양 떼와 소 떼나 바다의 모든 고기를
광야에서 잡은 들 부족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민 11:21-22).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메추라기를 몰아 이스라엘 진영 사방에 내리게 하시사
그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넉넉히 먹게 하셨습니다(31-33 절).

빌립은 남자만 5 천명 되는 큰 무리를 먹으려면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 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다고 생각했습니다(요 6:7).
그런데 예수님은
한 아이의 물고기 2 마리와 떡 5 덩어리로
그들이 원하는 대로 먹게 하시고 나서도
남은 조각이 12 바구니에 찾습니다(10-13 절).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네가 이제 내 말이 네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민 11:23).

영원하신 주 하나님

영원하신 주 하나님을 영원히 신뢰하라! (사 26:4)

영원히 주님의 신부로!

주님께서 주님의 교회를 세우사
영원히 주님의 신부로 삼으셨사오니
주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삼하 7:24; 마 16:18).

영원히 죽어 마땅한 죄인이었는데 ...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죽어 마땅한 죄인이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롬 5:10)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 참여하여(계 19:9)
왕 중의 왕이신 주님의 식탁에서 먹을 수 있는 영광을 얻게 되었으니
(참고: 삼하 19:28, 현대인의 성경)
이 어찌 감사 찬양 경배를 하나님께 드리지 않으랴.

영적 매력과 아름다움

육체적 매력과 아름다움은 행음할 위험이 많습니다(겔 16:15).

영적 매력과 아름다움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빌 2:8).

영적 아버지 (1)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복음으로 영적 자녀를 낳아 양육하는 영적 아버지를
본받는 자가 되어 합니다(고전 4:15-16).

영적 아버지 (2)

영적 아버지는 영적 아들을 권합니다(admonish)(고전 4:14).

영적 아버지는 영적 아들이 잘못하고 있는 점을 고쳐서 바르게 하고자 그를 경고하며
책망합니다.

영적 아버지는 영적 아들에게 변화할 것을 경고하되 그 경고를 듣지 않고 변화하지 않으면
심판(벌)이 초래할 것을 알려줍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는 그의 영적 아들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결코 영적 아버지는 영적 아들에게 수치심을 느끼게 하고자 책망하는 것이 아닙니다(14 절).

지혜롭고 겸손한 영적 아들은 이러한 영적 아버지의 책망을 받고 회개하며 변화를 추구합니다.

그리고 그는 자기의 영적 아버지의 책망을 통하여 하나님의 아버지의 사랑을 느낍니다.

영적 예배를 위한 영적 성숙?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 예배"를 드리기 위해선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영적 성숙이 있어야 하는데 ...
(롬 12:1; 골 1:9-12)

예레미야 같은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종 예레미야 선지자는
죽을 각오를 하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말씀을
계속해서 불순종하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들에게 "너희는 너희 길과 행위를 고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와 목소리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선언하신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시리라"고 말했습니다.
(예레미야 26:4-15)

예레미야 같은 하나님의 종이 절실히 필요한 시대입니다.

예배-증인들

우리는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찬양하므로
불신자들에게까지도 "앞드리어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가운데 계시다'함을 전파하는
'예배-증인들'로 세움을 받아야 합니다(고전 14:25).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른 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른 자는
열매 없는 자로서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지 못하므로
멀리 보지 못하는 맹인이요
자기의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어버린 사람입니다(벧후 1:4-9).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우리는 ...

예수 그리스도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우리는
"높은 산"에 올라 힘써 소리를 높여야 합니다.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해야 합니다(사 40:9).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Jesus wept).

사랑하는 이의 눈물이 내 마음을 무겁게 하지만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셨다는 말씀을 묵상하게 될 때(요 11:35)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사랑하는 이의 눈물을 보고 계신다고 생각하게 되니
마음의 위로를 받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셨기에 ...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 가셨기에(요 12:12)
우리가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계 21:2).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리스도인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마치 주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목을 곧게 하여
하나님의 책망과 권면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언약과 경계의 말씀을 버리고
오히려 주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일을 행하면서
점차로 불의를 행하여 주님을 배역하고
허무한 것을 뒤따라 허망하며
스스로 팔려 주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있습니다(왕하 17:7-17).

예수님의 가시 면류관, 내 육체의 가시

육체의 가시를 없애 달라고

하나님께 계속해서 간절히 기도를 드리기보다

그 가시를 믿음으로 겸손히 품고 십자가 앞에 나아가

가시 면류관 쓰신 주님을 의지하여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족한 구원의 은총과 사랑을 경험하십시오

(고후 12:7; 마 11:28; 27:29; 시편 31:9, 14; 40:13).

예수님의 고난 묵상 1

사람들 보기에 흠모할 만한

(사람들의 시선을 끌만한 매력이나)

아름다운 것이 없으므로 오는 고난(사 53:2)

예수님의 고난 묵상 2

예수님은 멸시와 천대를 받으시고

슬픔과 고통을 많이 당하셨으며

또한 사람들에게 외면을 당하셨는데

그 이유는 그를 귀히 여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사 53:3).

예수님의 고난 묵상 3

예수님의 고난은
우리가 예수님은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고 생각한 것입니다(사 53:4).

예수님의 고난 묵상 4

예수님의 고난은
우리의 허물과 죄악 때문에
채찍을 맞으시고, 찢리셨고, 상하시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화목케 하시사
평화를 누리게 하시고자
하나님 아버지에게 영원한 형벌을 받으신 것입니다(사 53:5).

예수님의 고난 묵상 5

예수님의 고난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간 우리 모두의 죄악을
사랑하시고 기뻐하시는 아들 예수님에게
담당시키신 것입니다(사 53:6).

예수님의 기도와 사도 바울의 기도

예수님의 기도와 사도 바울의 기도를 비교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기도: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마 26:42);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막 14:36).

사도 바울의 기도:

"이것이("내 육체의 가시")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세 번 주께 간구하였더니"(고후 12:7-8).

이 예수님의 기도와 이 사도 바울의 기도를 비교할 때에
예수님과 그의 사도인 바울은 비슷한 내용의 기도를 드린 것 같습니다.
물론 예수님의 "이 잔"와 사도 바울의 "이것"인 "내 육체의 가시"는
천지차이나는 것이겠지만 서두요.

그 비슷한 내용이란

예수님이나 사도 바울이나 기도를 드리셨을 때
"이 잔"(예수님)이나 "이 것"("내 육체의 가시")을
'지나가게 하소서'(pass away) 또는 '옮기시옵소서'(remove, take away)(예수님),
'떠나가게 하소서'(take away, leave, depart)(사도 바울)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이나 그의 사도인 바울은
각각 "이 잔"(예수님), "이 것"("내 육체의 가시")가 자신에게서 옮겨지길/떠나가길
기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점은

예수님은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간구하신 반면에(막 14:36), 사도 바울의 경우에는 주님의 답변인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라는 기도 응답의 말씀을 받았습니다(고후 12:9).

그 결과

예수님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이 잔"을 마시셨습니다.

즉, 예수님께서서는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반면에(빌 2:8; 참고: 마 27:50; 막 15:37; 눅 23:46; 요 19:30),

사도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했습니다(고후 12:10).

그는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했습니다(9 절).

예수님의 이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막 8:34; 참고: 마 16:24; 눅 9:23).

예수님의 제자들인 우리는 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을 따름에 있어서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 지기'를 "날마다" 해야 합니다(눅 9:23).

여기서 '자기 부인'이란

비록 내가 원하는 것은 "이 잔"이나 "이 것"("내 육체의 가시")가

내게서부터 옮겨지고 떠나가는 것이지만 그것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십자가 지기'란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내 십자가[예수님의 경우는 "이 잔",

사도 바울의 경우에는 "이 것"인 "내 육체의 가시"]를 달게 지고

겸손히 기뻐함으로 죽기까지 주님의 뜻에 복종하는 것입니다(빌 2:8).

예수님의 성육신 사랑을 생각할 때

예수님의 성육신 사랑을 생각할 때(요일 1:1-2; 요이 1:7)

과연 이웃을 향한 나의 사랑은 스스로 낮추는 겸손한 사랑인가,
섬김을 받으려고 하기보다 섬기려는 사랑인가?

예수님의 이중계명을 사도 요한의 요한일서의 관점으로 ...

예수님의 이중 계명: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네 자신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마 22:37-40)

(1)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계명을 사도 요한의 요한일서의 관점으로 말한다면

요한일서 2 장 15-17 절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여기서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는 의미는 다 지나가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인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대로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2) "네 이웃을 네 자신 같이 사랑하라"

이 계명을 사도 요한의 요한일서의 관점으로 말한다면

요한일서 2 장 3-11 절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요약한다면 형제를 사랑하고 미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에 살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

예수님의 초림 때 "이미"(Already) 예수님은 구원을 완성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재림 때 "아직도"(Not-yet) 예수님은 구원을 완성하실 것입니다.

이 "이미"(과거)와 "아직도"(미래) 사이에 (현재) 살고 있는 우리는

구원의 일을 시작하신 '완전하신' 성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까지 구원을 신실하게 '완성 하신다'는 확신을 가지고(빌 1:6)

보는 데로 살지 말고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고후 5:7, 새번역).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에 살고 있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과거(Past) 예수님의 초림 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음"(Faith)으로

미래(Future) 예수님의 재림 때

우리가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하여

주님의 모습을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볼 것을 "소망"(Hope)하면서

현재(Present)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에 살고 있는

우리 성도들은 영원한 생명을 얻는 자들로서

천국 백성답게

주님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Love)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오직 교회를 성장케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오직 교회를 성장케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십니다(고전 3:6, 7).

하나님께서서는 주님의 사역자들을 통하여 교회를 성장시키십니다(5 절).

사명에 이끌림을 받는 사역자들,

자기 자신이 아무 것도 아니요 그저 하나님께서 쓰시는 도구임을 아는 사역자들,

겸손하여 서로 협력할 줄 아는 사역자들,

신실하게 사명을 완수할 때까지 충성하는 사역자들,

주님으로부터 자기의 일하는 데로 상을 받을 줄 바라보는 사역자들,

이러한 사역자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교회를 성장시키고 계십니다.

오직 구원의 은혜로!

오직 성삼위 일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로 ... (엡 1:3-14)

오직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 ...

오직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역자들로 세우시사

우리를 심는 자나 물 주는 자로 사용하고 계시니

이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일입니까

(고전 3:5-7).

오직 주님께서 나의 가는 길을 아시기에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 (욘 23:10)

오직 주님께서 나의 가는 길을 아시기에

나는 오늘도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예수님을 따라 살려합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보아야 ...

우리는 우리가 접한 큰 시련을 통하여

우리의 무능력과 어찌할 바를 모르는 우리의 무지함을 깨달았을 때에

우리는 더욱더 오직 주님만 바라보아야 합니다(대하 20:12).

오해를 해도 어떻게 이정도로?

엘리 제사장은 "마음이 슬픈 여자"인 한나를 "악한 여자"로 여긴 것 같습니다
(삼상 1:12-16).

어떻게 우리 목사님들은 여성도님을 몰라도

이 정도로 모르고 있는 것일까요?

여성도님들도 우리 목사님들을 봐주고 있습니다.

사랑에 그저 감사하지요.

"옥상"에서의 "동침"?

다윗 왕은

저녁때에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유부녀 밧세바가 목욕을 하는 것을 보고

그녀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여

그녀와 더불어 "동침"을 하였는데(삼하 11:2-4)

그의 아들 압살롬은

장막을 친 "궁전 옥상"에서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는 데서

자기 아버지 다윗의 후궁들과 "동침"을 했습니다(16:22, 현대인의 성경).

올무에 걸리지 말아야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섬기는

멸망한 그들의 자취를 밟아

올무에 걸리지 말아야 합니다(신 12:30).

옳은 말로 꾸짖는 것?

그칠 줄 모르는 고통으로 인해 낙심한 자에게

옳은 말로 꾸짖는 것은 매우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욘 6:10, 14, 25, 26).

왜 갇힌바 된 상황으로 ...?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람이 보기에
갇힌바 된 상황으로 인도하시는 것일까요?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도 홍해 바다 앞에서
애굽 왕 바로가 보기에 갇힌바 되었고(출 14:2),
다윗도 그일라에서 이스라엘 왕 사울이 보기에
갇힌바 되었습니다(삼상 23:7).
하나님께 부르짖게 만드시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하나님의 구원(건지심)의 능력을 나타내시므로
더욱더 구원의 하나님을 믿게 만드시고자 그러시는 게 아닐까요?

왜 그리도 욕심을 크게 내는 것인가?

광야와 같은 이 세상인데
왜 그리도 욕심을 크게 내며
하나님을 시험하고 있는 것인가?
그 원인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과거에 우리의 삶 속에 행하신 큰일을 속히 잊어버리고
또한 하나님의 가르침을 기다리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그 결과 우리의 영혼은 쇠약해졌다
(시 106:13-15, 21).

왜 방향을 돌려 광야로 인도하시는 것일까요?

우리보다 먼저 가시는 우리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모든 일을 행하시되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안는 것 같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걸어온 길에서
우리를 안으사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일에 우리 하나님을 믿지 아니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방향을 돌려 다른 길을 따라 광야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신 1:30-40).

왜 하나님은 방향을 돌리사 우리로 하여금
광야로 인도하시는 것일까요?
혹시 우리의 불신앙을 단련시키려고?
혹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불순물들을 정화시키려고?
혹시 우리로 하여금 겸손케 하시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케 하시려고 그리 인도하시는 것이 아닐까요?

왜 여호수아는 정탐꾼 2 명만 보냈을까요?

여호수아는 모세가 가나안 땅에 정탐꾼을 보냈을 때
그 12 명 정탐꾼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민 13:8, 16).
그리고 여호수아는 자기와 함께 가나안 땅을 정탐한 갈렙 외에
다른 10 명의 정탐꾼들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므로(32 절)
이스라엘 온 회중이 밤새도록 통곡하고 원망한 것도 다 목격했을 것입니다(14:1-2).
그런데 여호수아는 모세가 죽은 후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면서
숫담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냈습니다(수 2:1).
왜 그랬을까요?

분명히 여호수아는 모세 시대 때 12 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보낸
부정적인 결과를 알고 있었을 텐데
왜 그는 또 다시 2 명의 정탐꾼을 그 땅에 보냈을까요?
물론 여호수아는 그 2 명의 정탐꾼을 통해
가나안 땅과 여리고를 몰래 조사해 오길 원했습니다(1 절, 현대인의 성경).
그런데 왜 여호수아는 모세가 했던 것처럼
각 지파에 한 사람씩 뽑아서 12 명을 보내지 않고 2 명만 보냈을까요?

그 2 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보낸 결과
그들은 돌아와서 여호수아에게 그들이 겪은 모든 일을 고하고(23 절)
이렇게 말했습니다: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주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주인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녹더이다”
[(현대인의 성경) “우리는 여호와께서 그 땅을 우리에게 이미 주신 것을 확신합니다.
그들은 우리가 무서워서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더 나쁘게 행하고 있는 것일까요?

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지 못할망정 오히려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더 나쁘게 행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 원인이 뭘까 생각해 볼 때 저는 그 원인 중에 하나가
바로 디도서 2 장 1 절에서 말씀하고 있듯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바른 교훈”(sound doctrine)을 잘 배우지 못해서라고 생각합니다.
그 결과 우리는 지금 “바른 말”(sound in speech)을 하지 못하고 있고(8 절)
더 나아가서 '바른 삶'(sound in life)을 살어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는 서로 사랑하지 못하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가 주님의 계명대로 서로 사랑해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왜 우리는 그 계명에 순종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그 원인은
우리에게 큰 사랑을 베푸신 성부 하나님과
우리의 죄를 위하여 화목제물로서
십자가에서 스스로 목숨을 버리신
태초부터 계신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와 친밀한 사귄(교제)을 누리고 있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요일 1:1-3; 2:2; 3:1, 16).

왜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난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난 것일까요?"

(삿 6:13)

그 이유는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와 목전에

악을 행했기 때문입니다(1 절).

그런데 기드온은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셨다고 생각했습니다(13 절).

왜 직분자들은 분쟁하는 것일까?

교회 안에 다양한 "직분"을 가진 우리 성도들은

왜 교회의 연합성(하나됨)을 지키지 못하고

분쟁하는 것일까?

분명히 "주는 같"은데 말이다

(고전 11:18; 12:5).

왜 하나님께서는 ...?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까운 블레셋 사람들의 땅의 길로 인도하지 않으시고

멀리 홍해의 광야 길로 돌려 인도하신 것일까요?(민 13:17-18)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의 광야 길로 돌려 인도하시면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셔서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뒤를 따를 것이고

그리하겠습니까?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 바다 앞에서 갇힌바 될 것인 줄 아셨을 텐데

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그리로 인도하신 것일까요?(14:1-4)

우리의 본능은 지름길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본능적으로 운전하면서 목적지를 향해서 갈 때에도 내비게이션(GPS)을 키고

제일 빠른 지름길을 선택하여 목적지에 도착하는 것을 선호합니다.

그런데 웬지 주님께서는 우리가 선호하는 짧은 길, 지름길로 인도하시지 않으시고 멀리 돌려 인도하실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까운 블레셋 땅으로 인도하시지 않은 이유는

그들이 블레셋 사람들과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기 때문입니다(13:17).

짧은 지름길은 목적지에 빨리 도착할 수 있지만

동시에 빨리 출발지로도 돌아갈 수도 있지요.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먼 홍해의 광야 길로 인도하신 것일까요?

저는 그 이유를 3 가지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1)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케 하시고자

(2) 그들을 겸손케 하시고자(신명기 8:2)

(3) 그들로 하여금 오직 여호와와 그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만 살아야 함을 가르쳐 주시고자(3 절).

비록 지금 우리가 걷고 있는 길이 지름길이 아니라
기대하지 않고 원하지도 않았던 먼 길이라 할지라도,
그리고 그 먼 길을 걷는 중에 홍해 바다 앞에 갇힌바 된 것처럼
큰 위기 문제의 해결점이 인간적으로는 불가능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바울과 실라처럼 하나님께 기도하며 찬양하길 원합니다(행 16:25).
그 이유는 여호와께는 나의 목자가 되시기에
내게 부족함이 없기 때문이요(시 23:1),
하나님께서 큰 위기 가운데 큰 구원의 사랑을 베푸시사
큰 영광을 들어내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참고: 출 14:4-31; 15 장).

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하나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고 계시기에(시 116:1-2)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잠 23:12).

왜 하필이면 "큰 물고기" 안에서 일까요?

많고 많은 기도 장소에서 왜 요나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큰 물고기" 안에서 하나님께 기도했을까요? (욘 1:17; 2 장)

하나님께서 바다 위에 내리신 "큰 바람"으로 인해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 요나가 타고 있었던 배가 거의 깨지게 되었을 때에도
요나는 배 밑층에서 기도할 수 있었을 때 오히려 그는 깊이 잠이 들어있었습니다(1:4-5).

한 마디로,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갔었을 때에는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있다가 큰 물고기 안에서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을 그 때서야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다는 말입니다(2:6).

우리도 요나와 별 다를 바가 없습니다. 우리는 "배" 안에서는 기도하지 않고 잡니다.
그러나 우리는 "큰 물고기" 안에서는 하나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그 이유는 "내가 받는 고난" 때문입니다(2 절).

왜 항상 불순종하는 자에게 항상 순종하라고 하실까?

"항상" 하나님을 거역해 오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는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그가 주신 책무와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항상 지키라"고 말했습니다(신 9:24; 11:1).

항상 주님께 불순종하는 나에게 주님께서서는 주님의 말씀을 "항상" 지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 주님께서서는 항상 불순종하는 나에게
주님의 말씀을 항상 순종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일까요?

“외국인”

우리는 “외국인”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신 1:16, 현대인의 성경)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 광야에서 있었을 때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 즉 “외국인들”이 있었습니다(민 11:4).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섞여 있는 외국인들이 “탐욕”을 품으므로

이스라엘 백성들도 또 다시 울며 불평했습니다(4 절, 새번역).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몇 개의 성을 도피성으로 선정하여

과실로 사람을 죽인 자가 피신할 수 있게 하라고 명하셨을 때(민 35:11, 현대인의 성경)

그 도피성들은 이스라엘 사람뿐 아니라 그들 중에 영주하거나 잠시 머무는

“외국인에게도” 피신처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15 절, 현대인의 성경).

모세는 더 이상 홀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괴로운 일과 힘겨운 일과

그들의 다투는 일을 담당할 수가 없어

이스라엘 백성들의 각 지파에서 지혜와 지식이 있는 인정 받는 자들을 택하여(신 1:12-15)

천부장과 백부장과 오십부장과 십부장과 조장을 삼고 그들에게 이렇게 지시했습니다:

“사람들이 소송 문제를 가지고 오면 여러분은 이스라엘 사람이든

‘외국인’이든 그들의 말을 잘 듣고 공정하게 재판해 주십시오”(16 절, 현대인의 성경).

우리는 외국인을 공정하게 해야 합니다.

요나단 같은 친구

생사의 갈림길에 놓여있을 때 내 마음의 소원이 무엇이든지

나를 위하여 그것을 이루어주겠다는

요나단 같은 친구가 내 곁에 한 명이라도 있으면 ... (삼상 20:3-4)

요나단의 사랑, 주님의 사랑

다윗을 향한 요나단의 사랑을 생각할 때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사는 날 동안 주님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사 우리를 영원히 죽지 않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주님의 인자하심을 우리 집에 영원히 끊어 버리지 않으십니다.
그 이유는 주님께서서는 우리를 자신의 생명보다 사랑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삼상 20:14-15, 17)

요나의 내려감과 예수님의 낮아지심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한 요나 선지자는
웁바로 내려가고
다시스로 가는 배로 '내려가고'(3 절)
더 나아가서 배 밑층으로 내려갔을 뿐만 아니라(5 절)
“깊은 속 바다”(2:3)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가게 되었습니다(6 절)

그런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신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빌 2:6)
낮고 천한 이 세상에 죄 없는 육체의 몸을 입고 오시되, 낮고 낮은 베들레헴 마구간 구유(짐승의
먹이를 두는 곳)에 누이시고(눅 2:7),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시되(빌 2:7) "자기를 낮추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하셨는데(8 절),
그 십자가형은 하류계층에게만 적용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서는 낮아지고 낮아지시되 "땅 속"까지 내려가셨습니다(마 12:40).

용서의 기도

"여호와와 기름 부으신" 사울 왕의 옷자락을 땀으로
마음에 찔림이 있었던 다윗은(삼상 24:5)
자신이 왕이 되어 압살롬으로부터 도망칠 때
시므이가 그를 저주하므로
죽어 마땅한 죄를 범했는데도 불구하고(삼하 19:21)
그에게 "네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고
그에게 맹세"까지 했습니다(23 절).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왔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요 11:11)
독생자 예수님을 저주의 나무인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 때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에게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눅 23:34).

우리 가운데 분쟁이 없기 위해선 ...

우리 가운데 분쟁이 없고 온전히 합하기 위해선
우리 모두가 주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의 뜻을 행하며,
주님의 말씀으로 말해야 할텐데 ...
(고전 1:10)

우리 마음에 간직해야 합니다.

우리의 지성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의 이성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일을
우리는 우리 마음에 간직해야 합니다
(눅 1:66; 단 7:28; 참고: 창 37:11).

우리 마음을 힘써 지켜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 마음을 힘써 지켜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스스로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평생 동안 그 일들을 우리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신 4:9).

우리 마음이 교만해지고 있다는 증거?

우리 마음이 교만해지고 있다는 증거는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보답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대하 32:25).

우리 목사님이 ... ㅠㅠ

우리 목사님이
원로 장로님들의
올바른 가르침을 버리지 말고
우리 교인들을 후대하여 기쁘게 하고 선한 말을 하며,
우리 교인들의 말을 듣고
매우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해야 할 텐데,
오히려 젊은 장로님들의
잘못된 가르침을 따라
우리 교인들의 멍에를
더욱더 무겁게 하고 있으니
우리가 목사님과 무슨 관계가 있는 것일까 ... ㅠㅠ
(참고: 대하 10:1-16)

우리 목사들이 어리석어 ...

우리 목사들이 어리석어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므로
형통하지 못하며
또한 지혜롭게 행하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양 떼는
흩어지고 있습니다
(렘 10:21).

우리 미래의 소망입니다.

장차 예수님이 나타나시면(이 세상에 다시 오시면)
우리가 예수님처럼 죄를 범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죄를 알지도 못하는 죄가 없는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미래의 소망입니다
(요일 3:2-3; 히 4:15; 뱀전 2:22, 고후 5:21).

우리 자녀들과 손주들에게 알게 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목격한 하나님의 일들을
우리 자녀들과 우리 손주들에게 알게 해야 합니다(신 4:9, 34).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하나님 경외함을 배워
우리 자녀에게 가르쳐야 합니다.(10 절).

우리 자녀들이 어렸을 때부터 ...

우리 자녀들이 "아직도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을 찾고,
자라나면서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자기의 모든 우상들을 제거하여 버리면 좋겠습니다
(대하 34:3-7).

우리 집은 지혜로 세워져야 합니다.

우리 집은 지혜로 말미암아 건축되고,
명철로 말미암아 견고해지며, 각방들은 지식으로 말미암아
각종 귀하고 아름다운 보배로 채워져야 합니다(잠 24:3-4).

우리 하나님은 ...

하나님께서서는 겸손하고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성케, 소성케 해주십니다(사 57:15).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탐심의 죄악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운데 매를 맞으면서도 회개하지 않고 패역하여
자기 마음의 길로 자를 고쳐주시고, 고쳐주십니다(18, 19 절).
그러신 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19 절).
우리 하나님은 긍휼과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이지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기대한대로 안되면

주님께서서는 주님의 뜻대로 우리에게 약속하신바 신실하게 행하시고 계신데
우리는 우리의 뜻과 욕심대로 주님께 기도하고 기대한바
이뤄지지 않았다고 생각할 때 주님을 원망합니다
(마 20:10-14).

우리가 미워할 때 ...

주님의 계명은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요일 3:11, 23)

그런데 우리는 이 주님의 계명에 불순종하여
서로 사랑하지 않고 미워할 때가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우리 형제/자매를 미워할 때(15 절)

- (1) 우리는 가인 같이 하는 것이요(12 절),
- (2) 세상이 우리를 사랑할 것이요(13 절),
- (3) 우리가 아직도 사망에 머물러 있는 것이요(14 절),
- (4) 우리는 살인하는 자(15 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마디로, 우리가 우리 형제/자매를 미워할 때
우리는 가인 같이 살인하는 자입니다(12, 15 절).

우리가 보기에 "가장 좋은 것"이 실제로는
'가장 나쁜 것'이 될 수도 ...

탐심에 이끌려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보기에 "가장 좋은 것"을 "탈취"하는 것은

우리 자신에게 가장 나쁘게 하는 것입니다

(삼상 15:9, 19, 21, 23).

우리가 "여수룬"입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믿는

우리가 바로 "여수룬"(뜻: '의로운 자')입니다(신 33:5).

그 이유는 우리는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죄 사함을 받았고,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의롭다하심을 받았기 때문입니다(롬 4:25).

우리가 일어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폭풍이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일어나” 니느웨로 가라고 명하셨을 때(욘 1:2),

요나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내려’ 갔습니다 (3 절).

그리고 요나는 옴바로 “내려”갔으며, 배로 “내려” 갔으면(3 절) 결국에는 배 밑층까지 “내려”갔습니다(5 절).

하나님께서 대풍을 바다 위래 내리시므로 바다 가운데 폭풍이 “일어났”습니다(4 절).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시의 신을 불렀(기도하였)습니다(5 절).

그러나 요나는 누어 깊이 잠이 들었습니다(5 절).

우리가 주님의 명령인 “일어나” 가라는 말씀에 불순종하면,

우리는 “내려”가고 또 “내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일어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폭풍이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명령에 불순종하면,

우리 주위에 있는 불신자들까지도 고통을 당할 것입니다.

그 불신자들이 자기들의 신에게 부르짖을 때에도,

우리는 깊이 잠들어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잘하는 것, 못하는 것?

성경은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고
말씀하고 있지만(출 14:13),
우리가 잘하는 것은 두려워하는 것이요
우리가 못하는 것은 가만히 서서 보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은 ...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은
우리에게 가까워
우리 입에 있으며
우리 마음에 있습니다(롬 10:8).

우리가 주님 앞에서 간구할 때에 ... (1)

우리가 주님 앞에서 간구할 때에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여 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긍휼"을 의지하여 기도해야 합니다(단 9:18).

우리가 주님께 간구할 때에 (2)

우리가 주님께 간구할 때에

우리 자신을 위하여 기도를 응답해 주시길 구하기보다

"주 자신을 위하여" 기도 응답해 주시길 구해야 합니다(단 9:19).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면

우리의 길이 평탄하고 우리가 형통할 것입니다(수 1:5-9).

우리는 마음과 뜻으로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마음과 뜻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하여 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하나도 틀리지 않고 우리에게 응하여

그 중에 하나도 어김이 없음을 알아야 합니다(수 23:14).

우리는 복 받은 사람입니다.

우리는 복 받은 사람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는 항상 주님 앞에 앉아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있기 때문입니다
(왕하 10:8; 눅 10:39, 42).

우리는 복을 받은 자들입니다(민 22:12).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가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하심을 받았고,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습니다(롬 5:6-10).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8 절).

우리는 불신의 말을 듣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대하여
“악평한 자들”(민 14:37)의 “악평”으로 말미암아(13:32)
이스라엘 온 회중이 밤새도록 “통곡”했을 뿐만 아니라(14:1)
그들은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습니다(2 절).
더 나아가서,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지휘관을 세우로
애굽으로 돌아가”려고까지 했습니다(4 절).
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10 명 정탐꾼이 말한 “악평”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9 절).

우리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의 불신의 말을
듣는 것을 매우 조심하고 경계해야 합니다.
그 이유는 만일 우리는 그들의 불신의 말을 들으면
우리 마음에 두려움이 생길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 마음에 두려움이 생기는 것을 매우 경계해야 합니다.
그 이유는 만일 우리 마음에 두려움이 생기면
우리는 하나님을 거역할 것이기 때문입니다(9 절).

우리는 털려서 빈손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소행 좋지 못할 때 우리의 대적의 비방을 생각하고
우리는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행해야 합니다(느 5:9).
만일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서는 우리의 집과 산업에서 털어 버리실 것입니다.
우리는 털려서 빈손이 될 것입니다(12-13 절).

우리는 하나님의 걸작품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걸작품이다(엡 2:10).

하나님께서 죄와 허물과 죽었던 우리를 하나님의 피로 사시사(행 20:18)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만드셨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걸작품인 우리를 천상에 전시하셨다(엡 2:6).

그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서이다(10 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큰 사랑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요일 3:1-2).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님의 계명대로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11, 23, 24 절).

서로 사랑하되 우리는

육체로 오신(요이 1:7)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신(요일 1:1, 2)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화목제물로(2:2)

자신의 목숨을 십자가에 버리신 것처럼

우리도 목숨을 버리기까지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3:16).

우리로 하여금 에워싸여 있게 만드는 사탄?

사탄은 우리로 하여금 "에워싸여 있"게 만듭니다(대하 32:10).

그리고 사탄은 우리가 그 에워싸여 있을 때에

주님의 종을 통하여 들은 말씀인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에워싸임에서 건져주실 것입니다'라고 믿는 것을 가리켜

주님의 종이 우리를 "끼어" 말한 것이라고 말합니다(11 절).

그래서 사탄은 우리에게 주님의 종에게

"속지 말라 꾀임을 받지 말라 그를 믿지도 말라"고 말합니다(15 절).

사탄은 우리가 모든 우상들을 제거하고

"다만" 주님만을 섬기고 예배하는 것을 싫어하지요.

사탄은 우리에게 그 에워싸여 있는 힘든 위기 상황에서

"능히" 주님도 못 건지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 하나님이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지겠느냐"(14, 15 절; 참고: 17 절).

우리를 막으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막아

하나님의 백성의 원수에게

높임을 받지 못하게 하시며

존귀하지 못하게 하십니다

(민 24:11).

우리를 버리시지 않으시는 하나님

온 세계로 취케 하는 금잔과 같은 바벨론(렘 51:7),
재물이 많아 탐남의 한정이 이른 바벨론(13 절),
그 바벨론에서 고난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비록 거룩하신 하나님을 거역하므로 죄과가 땅에 가득하나
그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버림을 받지 않았습니다(5 절).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 안에 죄가 가득하나
하나님께서서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실 뿐만 아니라 버리시지 못하십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우리 대신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버리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

지금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를 위로하는 자는 나 곧 나이니라"(사 51:12).
하나님은 구속 받은 우리들을 구원하시사
우리에게 영원한 기쁨을 주시므로 우리를 위로하십니다(5, 6, 11 절).

우리만의 '바벨 탑'을 세울 때

우리가 우리의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흠어짐을 면하고자 우리만의 '바벨 탑'을 세울 때
하나님께서서는 내려오시사 우리의 하는 일을 막으시고자 우리의 언어(대화, 소통?)를 혼잡하게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시고 우리를 흠으시지 않나 생각합니다(창 11:1-9).

우리보다 먼저 가시는 우리의 하나님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의 말대로 자기들 보다 “먼저” 사람을 가나안 땅에 보내어 그 땅을 정탐하게 한 것이 그들을 위한 것이었을까요? (신 1:22)
과연 모세가 말한 대로 그렇게 하는 것이 좋은 것이었을까요? (23 절, 현대인의 성경).
그렇게 한 결과는 무엇이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인 가나안에 올라가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했습니다(26 절).
그들은 장막 중에서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시므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 넘겨 멸하시려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도다”라고 원망을 했습니다(27 절).

이 원망이 말이 됩니까?
아니 어떻게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미워하신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아니 어떻게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멸하시려고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원망하는 마음은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지 못하는 마음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목적을 망각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 보다 “먼저” 정탐꾼들을 보낸 결과 12 명 중 갈렙과 여호수아를 뺀 나머지 10 명의 정탐꾼의 악평을 들으므로(민 13:28-33) 낙심했으며(신 1:28) 또한 소리 높여 밤새도록 통곡하면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습니다(민 14:1-2).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으므로 하나님을 멸시한 것입니다(11 절).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의 말대로 그들 보다 “먼저” 가시는(신 1:30) 하나님을 믿고(참고: 32 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신대로 가나안 땅에 올라가서 차지했어야 했습니다(21 절). 그들은 두려워(무서워)하지 말고(21 절, 29 절) 또한 주저하지 말고(21 절) 자기들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그들이) 갈 길을 지시하신” 하나님(33 절)을 믿고
갈렙처럼 온전히 하나님께 순종했어야 했습니다(36 절).

우리 하나님은 우리보다 먼저 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지금까지 우리 개인과 가정과 교회를 뒤돌아 볼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먼저 가셔서 여기까지 인도해주셨다는 사실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앞으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보다 먼저 가셔서 우리를 인도해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보다 먼저 가시는 하나님을 믿고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결코 우리 사람들이 하나님보다 먼저 가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근심이 많고 우리 몸에 힘이 없어졌을 때 ...

우리에게 근심이 많고 우리 몸에 힘이 없어졌을 때

주님께서 우리를 만지시며 우리를 강건하게 하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고 말씀하실 때에

우리가 "곧 힘이 나서" 이렇게 주님께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내 주여, 주께서 나에게 힘을 주셨으니 이제 말씀하소서"

(단 10:16-19, 현대인이 성경).

우리에게 기울어 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아들 압살롬의 죽음으로 인해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더라면,

압살롬 내 아들이 내 아들이"하면서

(삼하 18:33; 참고: 19:4)

울며 슬퍼하므로

"그 날의 승리가 모든 백성에게 슬픔이" 되었고,

"그 날에 백성들이 싸움에 쫓겨 부끄러워 도망함 같이

가만히 성읍으로 들어"갈 정도로(19:1-3)

다윗의 마음이 죽은 압살롬에게 기울어져 있었지만,

"온 이스라엘이 왕을 왕궁으로 도로 모셔오자 하는 말이"

다윗에게 들렸을 때에는(11 절)

"모든 유다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 같이 기울게" 하였습니다(14 절).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상에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라고 부르짖으셨을 때에도

(마 27:46)

우리에게 기울어 계셨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의 마음은 하나 같이

오직 왕 중의 왕이신 주님께 기울어져 있습니다

(계 19:16).

우리에게 평안을 주실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모든 일을 성취하심으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실 것입니다
(사 26:12).

우리에게 "쉼"이 필요합니다.

천지창조하신 하나님도
엿새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에는 일을 마치시고 쉬셨는데(출 31:17)
지금 우리는 6일 동안 일하고
7일째 되는 날인 안식일에 쉴 줄을 모르는 것 같습니다.
쉬어야 할 때 쉬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쉼"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귀와 눈과 마음

우리의 귀는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속히 해야 하는데

사람(들)의 말 듣기를 속히 하고 있다.

그 결과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로 바른 선택을 하지 못하고 있다.

그 선택이란 바로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간지러워서 자기(우리)의 사욕을 좇을 스승을 많이 두”는 것이다(딤후 4:3).

우리는 바른 교훈(sound doctrine)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우리의 눈은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고 있다(히 12:2).

우리는 우리 인생의 폭풍을 바라보면서

그 폭풍을 다스리시는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있다.

그 결과 우리는 믿음으로 행하지 않고 보는 데로 행하고 있다(고후 5:7).

우리는 우리 눈으로 바로 보며(look straight ahead)

우리는 주님을 똑바로 쳐야보며(fix our gaze directly before the Lord)

걸어가야 한다(잠 4:25).

우리는 생명의 근원이 되는 우리의 마음을 잘 지키지 못하고 있다(잠 4:23).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잘 지키지 못하고 있다(잠 3:21).

그 결과 우리는 생명력을 잃고 있으며 우리 육체의 건강도 잃고 있다(22 절).

우리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우리 마음을 지켜야 한다(4:23).

그 이유는 우리 마음은 생명의 근원이 되기 때문이다(23 절).

우리의 말과 우리의 전도함이 ...

우리의 말과 우리의 전도함이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지 않고
다만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면 상대방의 믿음이 하나님의 능력에 있지 않고
다만 사람의 지혜에 있는 것입니다(고전 2:4-5).

"우리의 본보기"

과거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므로
우리의 죄를 징계하신 것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더 이상 악을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입니다(고전 10:6)

우리의 이중 사명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공통된 이중 사명 (twofold calling)은
외면적으로는 복음을 증거 하는 것(행 20:24)과
내면적으로는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이다(빌 1:27).
그러나 한국 교회는 복음을 증거하는 외면적인 사명을 너무 강조한 반면에
내면적인 사명인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너무 강조하고 있지 않다.
그 결과 입술로는 복음이 전해지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의 삶은 복음 전파의 거침돌(장애물)이 되고 있다.

우리의 입이 말한 대로 행하지 않으면

만일 우리가 우리의 입이 말한 대로 행하지 않으면
우리의 죄가 반드시 우리를 찾아낼 것입니다
(민 32:23-24).

우리의 죄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죄 없으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 때문에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사 53:5, 10).

우리의 힘은 ...

우리의 힘은
하나님께서서 우리와 함께하시는 것입니다
(삿 6:14, 16).

우쭈뎅니다.

교회 안에서

허영심 가운데 자기 자신을 스스로 높이는 자는

형제, 자매들 앞에서 우쭈뎅니다

(참고: 삿 9:1-13).

원망하는 마음 or 감사하는 마음

원망하는 마음은

현재의 삶에 불만족 속에서

과거를 그리워하지만

(민 20:3-5)

감사하는 마음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미래를 바라며

현재를 소망 중에 즐거워합니다

(롬 5:1-2, 12:12).

원망하는 마음은 점진적으로 과거를 그리워합니다.

가데스에서 모세와 다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

- (1)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에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 하였도다”(민 20:3; 참고: 16:31-25)라고 말한 후,
- (2)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와 회중을 이 광야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 짐승이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20:4)라고 말했고,
- (3) 결국에 가서는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5 절)라고 말했습니다.

이 (1) ~ (3)까지의 내용의 흐름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제일 근래에 있었던 (1)에서 좀 더 과거인 (2), 그리고 결국 (3)에 가서는 그 셋 중에 제일 과거인 “애굽”에서 왜 자기들을 나오게 했냐고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이렇게 원망하는 마음은 점진적으로 과거로 돌아갑니다.

우리에게 원망하는 마음이 있으면 우리는 이렇게 점진적으로 과거로 돌아가 결국에 가서는 예수님을 믿기 전에 “애굽”과 같은 이 죄악 된 세상에서의 삶을 그리워합니다.

위기 가운데 쓰임 받는 하나님의 사람은 ...

위기 가운데 하나님께 귀히 쓰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위하여 잠잠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신 자신의 "자리"에서 "규례를 어기고"

"죽으면 죽으리이다"라는 각오로 나아갑니다(에 4:14-16).

위기 때 쓰임 받는 하나님의 사람들?

우리의 "자리" 또는 지위 등이

어쩌면 "이 때"를 위함이 아닌지요?

우리가 "이 때에"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안 되겠지요? (에 4:14)

유익한 고통?

고통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간절히 찾게 만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간절히 찾을 때

하나님께서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사

우리 고통의 원인인 우리의 죄를 알려주십니다.

그러므로 고통은 유익합니다(수 7:1-11; 시 119:67, 71).

육신의 생각은 ...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는

우리의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됩니다(롬 8:7).

육에 속한 사람은 ...

"육에 속한 사람"은 영적 분별력이 없기에
성령님의 일들을 알 수도 없고, 받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그 성령님의 일들을 어리석게 봅니다(고전 2:14).

육체의 고난의 유익?

육체의 고난을 받으므로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죄를 그치므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되었으니
이 육체의 고난도 감사해야 하지 않겠습니까(벧전 4:1-2).

"죽은 개나 벼룩" 같은 나를 살리시려고 ...

사울 왕은 "죽은 개나 벼룩" 같은 다윗을 쫓아 죽이려고 했지만(삼상 24:14),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은 "죽은 개나 벼룩" 같은 나를 살리시려고
이 낮고 낮은 천한 세상까지 오셔서 저주의 나무인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은혜를 베푸는 자는 ..

은혜를 사모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풀며 돌보는 자는
그 은혜를 사모하는 자의 마음을 위로하고 기쁘게 하는 말을 합니다
(룻 2:2, 10, 13).

은혜를 베풀었습니다.

누군가에게 은혜를 입기를 원했던 룯 (룻 2:2),
결국에 가서는 보아스에게 은혜를 입기를 원했습니다(13 절).
보아스는 룯으로 하여금 곡식 베는 자 곁에 앉아 떡을 먹게 했으며,
볶은 곡식을 그녀에게 주므로 룯이 배불리 먹었습니다(14 절).

또한 보아스는 룯이 이삭을 주우러 일어났을 때
자기 소년들에게 그녀를 곡신 단 사이에서 좁게 하고 책망하지 말라고 명령했습니다(15 절).

보아스는 룯을 위하여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 버려서
그녀로 하여금 좁게 하고 꾸짖지 말라고 명령했습니다(16 절).

이렇게 보아스는 자기에겐 은혜를 입기 원하는
룯에게 은혜를 베풀기를 그치지 않았습니다(20 절).

음악 치료 (Music Therapy)?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영(성령님)이 크게 감동된 하나님의 사람이
손으로 악기를 다루면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릴 때에
듣는 이들을 "상쾌"하게 할 뿐만 아니라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으로 인해 "번뇌"하는 자조차도
"상쾌하여 낮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납니다
(삼상 16:13-15, 18, 23).

음행과 절제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결혼해야 하며,
결혼 후에는
부부가 서로에게
성적 의무를 잘 감당해야 합니다.

부부는 절제하지 못하므로
사탄이 시험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서로 분방하지 말고 합방해야 합니다
(고전 7:2-5).

‘의를 행한다’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요일 2:29)

의를 행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그 나라의 왕이신 의로우신 예수님을 구하는 것입니다(마 6:33).

즉, 의를 행한다는 것은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께서(요일 2:1) 행하시는 대로
우리도 행하는 것입니다(6 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자들로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시는 대로
우리도 행해야 하는데(6 절)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계명에 순종하며 사는 것입니다(7-11 절).

예수님의 이중계명: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네 자신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마 22:37-40).

먼저 의를 행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이중계명 중

첫 번째 계명대로 주 하나님을 우리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 계명을 요한일서의 관점으로 말한다면

요한일서 2 장 15-17 절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여기서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는 의미는

다 지나가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인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대로 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즉, 의를 행하는 것이란

첫째로 다 지나가는 이 세상이나 이 세상에 있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대로
살지 않고 오직 하나님 뜻을 행하면서 사는 것입니다(2:15-17)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살전 4:3)].
그 다음에 의를 행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이중계명 중 두 번째 계명대로
우리 이웃을 우리 자신 같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 계명을 요한일서의 관점으로 말한다면
요한일서 2 장 3-11 절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인데
그 말씀을 요약한다면 형제를 사랑하고 미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계명의 순종하여
그 형제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습니다(5 절).
그리고 그는 빛 가운데 거하여[“빛 가운데 살기 때문에”(현대인의 성경)]
자기 속에 거리낄 만한 것이 없습니다(10 절, 현대인의 성경).

의인과 하나님

의인은 고난이 많습니다(시 34:19).
의인은 부르짖습니다(17 절).
의인은 마음이 상하여 중심으로 통회합니다(18 절).

하나님께서 의인의 부르짖음을 들으십니다(17 절).
하나님께서 그 의인의 간구를 들으시사
그의 모든 고난/환난에서 건지십니다(17, 19 절).
하나님은 그를 구원하십니다(18 절).

의인은 은총을 입을 때에 ...

의인은 하나님께 은총을 입을 때에

의를 배우고 또한 의를 행하므로 하나님의 위엄을 돌아보아야 합니다(사 26:10).

의인의 첩경

의인의 길은 정직 합니다.

정직하신 주님께서서 의인의 첩경을 평탄하게 하십니다(사 26:7).

이 세상은 ...

이 세상은 어두운 세상이요(요일 1:5, 6; 2:8, 9, 11),

거짓된 세상이요(1:6, 8, 10; 2:4, 21, 22; 4:1, 6, 20),

미움의 세상이요(2:9, 11; 3:12-15; 4:20) 또한

악한 세상이요 불의한 세상입니다(1:9; 2:2, 13, 14, 16; 3:12; 5:17, 18, 19, 21).

그리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입니다(요일 2:16).

그러므로 하나님께로 부터 난 우리는(5:1, 4),

즉 거듭난(중생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3:23)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않고(2:15) 오히려 믿음으로 이 세상과 싸워 승리하면서(5:4, 5) 오직 하나님의

뜻인(2:17)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서로 사랑하므로(3:23)

영원한 생명을 이 땅에서도 부분적으로 누려야 합니다(2:17).

이 좋은 편을 택해야 하는데 ...

우리는 교회 안에서 봉사하면서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합니다(눅 10:40).

그러다 보니 "나 혼자 일하게 두는"(40 절) 주위 형제, 자매들이 못마땅하게 여겨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불만족 속에서 심지어 주님에게까지 나아가 기도하면서 불평을 합니다: '주님, 저들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지 아니하십니까?'(40 절).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무개야 아무개야 네가 많은 일로 열려하고 근심하나 그러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42 절).

주님께서는 마리아처럼 "주의 발아래 앉아 그의 말씀을 듣"고(39)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을 우리에게 원하시는데

우리는 우리의 뜻대로 많은 일을 분주하게 하여

하나님께 많은 영광을 돌리려고 하는 욕심이 있습니다.

주님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42 절)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그 한 가지만 하는 것으로 만족을 못하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는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뜻대로 교회를 봉사하고 있습니다.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는데(42 절) ...

이 진리를 확신하십니까?

어느 누구도, 아무 것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이 진리를 확신 하십니까?
(롬 8:38-39)

이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면 ...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서는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롬 5:8).
하나님께서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시키셨습니다(사 53:6).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다 사하여 주셨습니다(골 1:14).
하나님께서서는 우리로 하여금 죄에 대해 죽게 하셨습니다(롬 6:2, 11).
이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면
우리는 우리의 이웃의 죄를 사하여 줘야 합니다(마 6:12).
만일 지금 우리가 우리 이웃의 죄를 사하여 주고 있지 못하(않)고 있다면
과연 우리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이것도 저것도 없는 광야의 축복

원래 광야에는

“파종할 곳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고(민 20:5),

오직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주시는 “하늘 양식” “만나”(시 78:24; 참고: 민 21:5)와

반석에서 내시는 “물”이 있을 뿐입니다(민 20:10-11; 참고: 시 105:41).

왜 하나님께서는 광야에 “파종할 곳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게 하신 것일까요?(민 20:5)

혹시 이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을 하게 만드시려고 하시는 것이 아닐까요?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에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

(합 3:17-19).

혹시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시려고

그러시는 것이 아닐까요? (신 8:3)

예수님께서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 날의 괴로움은 그 날로 족하니라”
(마 6:31-33).

이러한 자의 괴로움도 면하게 해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내가 원하는 뜻대로 해주세요'라고 기도하면서
내 뜻을 관철하려고 하는 나 같은 자에게도
하나님께서서는 나의 괴로움을 면하게 해주시려고
내 인생의 "박녕쿨을 예비"해 주십니다(욘 4:6).

이러한 지식보다 사랑이 더 낫습니다.

교만하게 하는 지식보다
덕을 세우는 사랑이 낫습니다
(고전 8:8).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실행하게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은 우리의 허물을 덮어주실 뿐만 아니라(잠 17:9),
우리의 허물을 보지도 아니하십니다(민 23:21).

그러나 사탄은 오늘도 우리로 하여금 우리 자신의 허물은 못 보게 만들면서
동시에 우리가 사랑하는 식구와 이웃의 허물을 자꾸만 보게 만들며
또한 들춰내게 만들려고 우리를 유혹할 것입니다.

우리는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고(엡 2:5)
우리의 허물을 다 사해주시고 우리의 죄를 가려주신(시 32:1)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면서(엡 2:5)
그 크신 하나님 은혜로 우리 이웃의 허물을 덮어 주는
하나님의 사랑을 실행할 수 있길 기원합니다(잠 17:9).

이루어질 줄 믿고 의심하지 말자.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요한복음 6 장 1-15 절과
마태복음 16 장 18 절의 약속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말자.
그리고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주님께 기도하고 구한 것은 이미 받은 줄로 믿자
(막 11:23, 24).

"... 이를 갈리라"

"외식하는 자가 ...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이 무익한 종 ... 이를 갈리라 ..."

(마 24:51; 25:30).

이미 이루심과 아직도 이루실 것임 사이에 살면서

언약의 하나님은 구원을 이미 다 이루셨고(예수님의 초림 때)(요 19:30)

구원을 장차 다 이루실 것이며(예수님의 재림 때)(계 21:6)

현재 그 구원을 이루어 나아가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미" 다 이루신 하나님의 구원과 "아직도" 다 이루실 하나님의 구원 사이에 살면서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 살아가므로(롬 8:14) 현재의 구원을 이루어 나아가야 합니다(빌 2:12).

이방인 적군의 꿈과 해명도 사용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서는 심지어 미디안 사람의 꿈과 해몽도 사용하시사

두려워하는 기드온에게 용기를 주시고

또한 하나님의 약속인 "내가 그것을 네 손에 넘겨주었느니라"는 말씀을

믿게 하셨습니다(삿 7:9-15).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신앙, 라합의 신앙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서 그들의 목전에서
애굽 왕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에 행하신 모든 일을
직접 목격했음에도 불구하고(신 29:2)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멸시했습니다(민 14:11).

그런 반면에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던 라합이란 이방인 여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하나님께서 그들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그들이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혼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듣기만 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라”
[(현대인의 성경) “정말 당신들의 하나님 여호와야말로 천하에서 제일가는 신이십니다”]라고
말한 것을 보면 그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믿었습니다(수 2:10-11).
그리고 그녀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줄을 알고 있었습니다(9 절).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서부터 자기들의 목전에서 행하신 모든 일을
직접 목격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았는데 그 모든 것을 직접 목격하지도 않고 듣기만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방인 여자 라합은 하나님을 믿을 수 있었을까요?

두 성경 구절이 생각납니다:

- (1) (로마서 10:17)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 (2) (에베소서 2:8)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슬과 같은 사랑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과 같습니다(호 6:4).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아침구름과 이슬처럼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은 잠깐이요 순간적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애"와 "하나님을 아는 것"보다

내가 원하는 "제사"와 "번제"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다(6 절).

그러한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쉬 없어지지 않는 영원한 사랑으로 사랑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제 사는 것도 싫어졌는데

"내 영혼의 아픔 때문에," "내 마음에 괴로움 때문에,"

"내 마음이 뼈를 깎는 고통을 겪느니

차라리 숨이 막히는 것과 죽는 것을 택"할 정도로(욘 7:11, 15)

이젠 사는 것도 싫어졌는데 "사람이 무엇이기에 ...

주께서 것처럼 소중히 여기셔서 많은 관심을 쏟으시고

주께서는 어째서 잠시 동안도 내게서 눈을 떼지 않으시"는 것일까요?

(16, 17, 19 절, 현대인의 성경)

"이제는 게으르지 말라"

하나님의 맹렬한 노를 우리에게서 떠나게 할 마음이 있는 자들은

"이제는 게으르지 말"아야 합니다(대하 29:10-11).

인생을 헛되이 허비해서는 아니 될 텐데 ...

"그림자 같이 다니"는 인생인데,
"헛된 일로 소란하며 재물을 쌓"기만 한다면
이 얼마나 짧은 인생을 헛되이 허비하는 것인가(시 39:6).

인생의 쓴맛을 본 여인 ...

인생의 쓴맛을 본 여인 나오미,
그녀는 소망이 없었습니다(룻 1:12).
그녀는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다가
남편만 죽은 게 아니라 그녀의 두 아들도 죽었습니다(1, 3, 5 절).
그녀는 늙어서 남편을 돌 수가 없었습니다(12 절).
그 말은 또 다시 아들들을 낳을 수가 없었다는 말입니다(12 절).
그녀는 "여호와와 손이 나를 치셨"다고 생각했습니다(13 절).
그녀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다고 생각했습니다(20 절).
그녀는 유다 베들레헴(1 절)에서 "풍족하게" 살다가(21 절)
"흉년"이 들므로 모압 지방으로 이사 갔다가(1 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다시 유다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게 하셨다고 말했습니다(21 절).
그녀는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다고 믿었습니다(21 절).
그래서 나오미는 자기를 "나오미"라 더 이상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고 말했습니다(20 절).
["나오미"의 뜻은 "나의 즐거움", "마라"의 뜻은 " "쓰다" 또는 "괴로움"임].

인생이란 "배"가 ...

인생이란 "배"가 "바람"이 부는 "바다 가운데" 있으므로
우리는 "힘겹게 노 젓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인생의 다양한 "바람"이 "바다 가운데" 불므로
우리의 "배"가 거의 깨지는 위기의 상황까지도 갈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 때 주님은 "바다 위로 걸어오심"니다.
그리고 두려움 속에 있는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주님은 배에 올라 우리에게 오심으로 우리 인생의 바람이 그칩니다(막 6:45-52).

일천 번제보다 ...?

솔로몬 왕은 기브온에 가서 큰 산당 그 제단에서
일천 번제를 드렸었지만(왕상 3:4)
그가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일천 명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므로(11:3-4)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했습니다.
저는 이 사실을 묵상할 때 이러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1,000 번의 예배를 드릴 때에
사단은 그의 1,000 명의 종들로 하여금 우리를 미혹합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하나님께 1,000 번의 예배를 드리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이라 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1 번째 명령을 순종하는 것을 더 기뻐하십니다.”

입술과 마음이 섬기는 대상이 다르면 안 되는데 ...

우리의 입술로는
우리가 결단코 주님을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지 않겠다고 말은 하지만
우리의 마음은
돈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보기엔
주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더 좋게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보다 돈을 섬기기로 선택한 것입니다
(수 24:14-16).

입으로는 다정이 말하면서도 마음속으로는 ...

"사람을 죽이는 화살과 같"은
혀를 가진 "이웃"들을 조심해야 합니다.
그 이유는 "그들은 항상 거짓을 말하고
입으로는" 우리에게 "다정히 말하면서도
마음속으로는" 우리를 "잡을 덫을 놓고 있"기 때문입니다
(렘 9 장 4, 8 절, 현대인의 성경).